

2021년 제5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일 시 2021년3월16일(화) 14시

장 소 서소문2청사 6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2021년 제5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진행상황

개 회 2021년3월16일(화) 14시
장 소 서소문2청사 6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I. 심의안건

제1호 안건

지식산업센터(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계획(○○○-○)

○○○ 위원

제일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계획 ○○○-○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설명

서울시관계자

심의안건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사업자 공모계획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 ○○○-○ 공모 시기를 올해 4월 달에 하기로 49차 정책
심의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공모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를 하여, 이 안이 가결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계획안은 산업시설용지 ○○○-○지에 있는 ○○,○○○㎡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달에 공모해서 2024년12월에 준공하는 일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월 달에 최종적으로 토지분양체결을
하는 일정입니다.

최소 입주기업 수,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는 ○
○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최소 ○○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R&D센터 용도를 보시면 총 면적 중에 산업시설 80% , 지원시설 20%입니다.

산업시설 80%는 업무시설로 용도를 정하고, 그중에 일반분양이 35% 이하, 실수요기업이 25% 미만, 그리고 임대료가 20% 이상, 지원시설을 약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자 평가 및 평가기준표 관련하여,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위원 간에 토론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평가 중에 평가위원 토론 금지를 자유토론 허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2020년 계약실무 매뉴얼에 ‘평가위원 간 자유롭게 토론하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위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정량평가 지표 변경 관련하여, 48차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 평가기준표와 동일하도록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량평가 중에서, ○○○○○과 ○○○○에 대한 평가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 ○○ ○○에서 ○○○ ○○○, ○○○ ○○○이랄지 ○○○ ○○○에서 ○○○○, ○○○○ 관련 요소를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 중에 ○○○ ○○○을 추가했어요.

그다음에 ○○○○에서는, ○○○○ ○○ 대신에 ○○○○과 ○○○○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7페이지에 증가된 사유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자문 받은 결

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그 내용 기록을 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 미리 공고가 났는데, 그중에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으로 같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께서 설명을 하신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전체적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민간사업자의 공공사업...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단독기업이 응찰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실수요기업 자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수요기업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안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 구성 부분에서 80점을 배점을 정량평가에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실수요기업 자체가 1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기업을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늘려주고, 면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10%에서 25%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그 1개 기업이나 들어와 가지고, 2개 기업이 들어와서 면적을 전체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건평 한 4, 5,000평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어떤 세분화 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추정치로 사업개시를 보고 있거든요.

추정치로 받는데, 실제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선정된 기업에서 고가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몇 평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실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기업이 쓰고 있는 면적에...사업개시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가능한 면적이 실수요기업이 하는데, 앞으로 정말로 실수요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실수요기업 뭐냐 하면, 면적을 잔뜩 받고 대부분 시행사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도록, 받는다고 해라.

사업 개시한다고 추정해 놓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을 대줘가면서 하는 현상들이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면적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세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실수요기업도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무리하지 않고 사업개시해서 자기네들이 연구,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데는 100명뿐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25% 받겠다고 하면 1,000명, 2,000명을 들어와야 만이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실수요기업을 1개로 정하지 않고, 2개나 3개하고 2개 이상 정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거죠?

서울시관계자

지금 그 내용 관련해서는 8페이지에 보시면,

○○○ 위원

8페이지요?

서울시관계자

예, 8페이지에 세부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민간사업자 구성해서, 80점 점수가 들어가는데,

○○○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

여기 보면 실수요기업 관련하여 면적으로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가점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기업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실수요기업들이 들어와서 면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지금 최소 지분이 8%이기 때문에, 총 11개 기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요기업이.

그래서 그 가점을 20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점 만점에 차버리면, 가점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시관계자

예, 그게 지금 논란이,

○○○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수요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자체에서.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수요기업하고 숫자하고 면적 부분도 세분화시켜 가지고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실제 실수요기업을 갖다가 2개 이상으로 해서 2개나 3개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주고, 면적도 여러 군데에서 실제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은 1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받고, 25%에 대한 면적을 전체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실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 위원

사업자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금 현재 마곡에 입주자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거든요,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뭐냐 하면 그거를 못 채우니까 사업개시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지산센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요기업을 늘려주고, 면적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가점의 의미가 없거든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왜냐하면 80점에서 자기가 다 미리 채워버리면 다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

실수요기업 개수는 여기 나온 대로 2개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면적에 대한 세분화, 다양화 이게 빠져있으니까,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거를 세분화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관계자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80점인데,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20% 이상을 실수요기업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80점을 맞아버리거든요.

○○○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다는,

서울시관계자

예, 그리고 실수요기업이 많이 차면 점수를 더 이상 못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면적 관련해서는 60점을 주고, 그다음에 가점이 최대 20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점을 이쪽 가점에 점수를 주게 되면, 면적을 다 채운다고 해도 60점이 되는 것이고,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같이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20점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기업당 2점씩 해서 총 11개 기업까지 하면, 총 20점 만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점제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정량적으로 많은 기업을 데려오면 데려온 만큼 점수를 주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숫자를 조금 늘려갖고요?

서울시관계자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 위원

실수요기업을 들어오면서,

서울시관계자

예, 실수요기업이 많이 들어올수록,

○○○ 위원

열 몇 개씩 들어왔을 때는,

○○○ 위원

그렇죠, 실수요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관계자

예, 그렇게 가점제가 아니고 아예 점수제로.

○○○ 위원

점수제로.

○○○ 위원

점수제로.

서울시관계자

예.

그렇게 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한번 그 부분을 검토,

○○○ 위원

그런데 실수요기업을 열 몇 개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 위원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가 사실?

서울시관계자

저희들이 지분율이 8%, 최하 8% 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최대 11개까지 볼 수가 있는,

○○○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기 하지 않나요? 너무 그래도,

서울시관계자

너무 이게 개수가 너무 기업이 많으면 줄여서,

○○○ 위원

개수를 예를 들면,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만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점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서울시관계자A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A

지금 이미 2개 민간지산이 공급됐는데 실수요기업들이 하나는 ○개, 하나는 ○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업개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연구소를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5년 후에 그 땅을 팔 수 있는 시점을 정하는 게 사업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시를 ○○라든지,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팔 생각이 없으면, 굳이 사업개시를 저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그래서 사업개시를 한다는 의미는, '5년 후에 땅을 팔겠다.'라는 의도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실수요기업 자체가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1,000평뿐이 안 필요한데,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여기는 20%에서 25%를 받아야 정량점수 80점을 받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실수요기업들한테 전체를 갖다가 다 매입하는 것처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가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실수요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뒤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관계자A

알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연구소 면적을 과다하게

계획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 ○○○○ 자체가 연구소 장래에 증설이라든지, 기업들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계획을 받았던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이 부분이 다시.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지금 우리 ○○○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하나씩, 2개씩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가점을 주는 것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면적별로 세분화도 또 필요하다.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요지가.

서울시관계자A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그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다른 의견 있으세요?

○○○ 위원

이 11개를 계속적으로 늘릴 수가 있나요, 실수요기업들?

○○○ 위원

11개가 한계입니까?

서울시관계자

11개가 한계입니다.

지분이 8%, 8%,

○○○ 위원

8%이니까.

○○○ 위원

예를 들어서, 실수요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8개 이상, 5개 이상 이렇게 해서 가점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면, 정말 너무 쪼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울시관계자

그래서,

○○○ 위원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이런 어떤 규모 정도 되면, 실수요기업이 우리가 봤을 때 2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5, 6개, 7개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중견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점수 준다고 그러면 11개로 다 쪼갤 거거든요, 다 대부분이.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관계자

그럼 ○ ○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개.

부위원장(최 만 범 위원)

○이라는 게 ○○개가 아니고 ○개?

서울시관계자

예.

그래도 지금은 1개 들어올 때마다 2점씩 가산, 2점씩 점수가 들어가는 데,

○○○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

그거 점수를 ○○○ ○○○으로 해서, 최대 ○○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구간을 나누면,

○○○ 위원

그렇죠, ○개 이상이라든가 ○개 이상 이런,

서울시관계자

이런 지난번 사례가 ○개에서 ○개 정도 이렇게 실수요기업이 들어왔
거든요.

○○○ 위원

여기 현재까지의 관점으로 보면 한 ○, ○개 정도죠?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 ○개 정도인데 ○개 이상, ○개, ○개 오기가 사실 어렵기는 한데.

서울시관계자

예, 그래서 한 ○개 정도로 해서 ○점, 점수 구간을 ○점이 아니라 ○
점 정도로 올려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개 이상일 때는 얼마이고, 예를 들어 ○개 이
상일 때는 얼마, ○개 이상일 때는 만점 준다는 건가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렇게 그 개념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실수요기업들이 들어오고,

○○○ 위원

그럼 구간별 가점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개 이상이면 만점을,

○○○ 위원

‘만점을 받는다.’

그렇지.

○○○ 위원

만점을 받는다고 치면,

○○○ 위원

예.

○○○ 위원

1개 추가할 때마다 격차를 두는 것이 훨씬 낫죠.

○○○ 위원

그렇죠, 그거를 레인지를 얼마큼 줄 것이냐.

○○○ 위원

왜냐하면 ‘11개까지는 너무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

예, ○개 이상은 몇,

○○○ 위원

그러니까 ○개 이상은 만점이면 ○개 이상이 ○○점이 되는 거고,

○○○ 위원

그렇죠.

○○○ 위원

예.

○○○ 위원

지금 1개 기업 추가당 2점이라는 부분이 ○점 정도로,

○○○ 위원

○점 정도.

○○○ 위원

예, ○점 정도로 해서 정리가 돼서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 위원

면적이 중요한 건가요?

저기가,

○○○ 위원

개수가 중요,

○○○ 위원

기업 수가 중요한 건가요?

○○○ 위원

2개 다 중요하죠.

○○○ 위원

그럼 배점을 같이 ○○점, ○○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 자체를?

○○○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은 ○○에서 ○○점, ○○% 미만이 ○○점 기본점수, 그게 기본이고 밑에 가점을 가지고 ○○점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면적도 차등을 줄 필요는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예, 있어요.

맞습니다.

○○○ 위원

글쎄, 면적도 그렇게 하면 ○개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관계자

지금 면적도 기존 안에 보면 ○○%에서 ○○%, 그 구간을 뺐어요.

○개 구간을 뺐서 그 구간의 면적을 쓰면 점수를 차등을,

○○○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체가 ○○점이잖아요, ○개가.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럼 ○○점, ○○점으로 나누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

○○ ○○점, ○○ ○○점 이렇게?

○○○ 위원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 위원

○○○ 위원님 말씀으로 계산하면 ○○은 ○○에서 ○○%가 ○○점인데, 이거를 ○○, 그다음 거에는 ○○, 만점을 ○○점으로 ○○으로 하고,

○○○ 위원

그렇죠, 그렇게.

○○○ 위원

밑에 수요기업 ○○를 또 ○○점으로 환산해서 ○개 이상이면 만점, ○점.

그다음에는 ○개면 ○○점 이런 식으로,

○○○ 위원

그렇죠.

○○○ 위원

쪼개는 식으로 계산이 되면 그게 만점이 되겠네요.

○○○ 위원

○개, ○개, ○개, ○개 이렇게 하지 말고 ○개,

○○○ 위원

예.

○○○ 위원

○개, 그렇게 레인지를 해놓으면 점수대로,

서울시관계자

한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 위원

예, ○개 구간으로.

○○○ 위원

예, ○개 구간으로 나누는.

○○○ 위원

너무 우리가 세분화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

서울시관계자

그런 게 더, 예, 구분을.

○○○ 위원

그게 더.

○○○ 위원

그런데 어차피 ○개 이상이면 ○개 이상, ○개 이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 위원

예.

○○○ 위원

그렇지.

○○○ 위원

○개랑 ○개로 하면 차이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해봐야 레인지가 ○에서 ○밖에 안 되니까, ○○로 나누어서 ○점씩 차등을 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만점을 받기 위해서 저기 연구기업들을 그거 할 거니까,

○○○ 위원

기업 수를 늘리는 거지.

○○○ 위원

그게 ○점이 엄청나게 큰 의미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 ○를 같은 점수로 주면 굳이 ○를 할 필요가 없죠.

○에 맞추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개 이상을 만점을 준다고 그러면, ○개씩의 편차를 두는 것이 조금 더,

○○○ 위원

○개씩으로?

○○○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 이상이면 몇 점, 그게 거꾸로 하면 ○개가 ○○ 점이면 ○개 이상, ○개 이상이면 ○개면 ○○, 그다음에는 ○○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도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 위원

○개씩, 레인지를 구간을 ○개씩으로 구간을 하라는,

○○○ 위원

예, 어차피 ○개 이상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 위원

만점이니까.

○○○ 위원

예.

○○○ 위원

○개는 괜찮은가요?

무리인가요?

아닌가요, ○개 기업 정도 되면?

서울시관계자

지금은 ○, ○개인데 ○개까지는, 하여튼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
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관계자

최대 11개까지는 올 수 있는데 ○개 정도,

○○○ 위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관계자

그런데 컨소시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렇게 맞춰올 수 있을지.

○○○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고민하셔야지.

○개로 할 것인지 ○개로 할 것인지,

○○○ 위원

그렇죠.

○○○ 위원

○개, 그거를 판단을 해주셔야지, ○○○에서.

○○○ 위원

지금까지 선례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개 정도. 그렇죠?

○○○ 위원

○개,

○○○ 위원

○개에서 ○개.

○○○ 위원

○개 정도.

○○○ 위원

○개에서 ○개인데 사실 ○개면 ○배가 되어 버리는 건데.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개 돼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 위원

그런데 저는 ○○○ 위원님에 의견에 굉장히 저는 동의하는 편인 게,
○개나 ○개만 가지고 와도 안전하다 그러면, 입주 업체를 사업자가 모
집할 이유가 없어지죠.

○○○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 위원

그러니까 제일 안전, 그냥 편하게 가는 거고요.

○개 이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많이 노력을 하겠죠.

○○○ 위원

그렇죠, 노력을 하겠죠.

○○○ 위원

그런데 ○개 못하고 ○개 해가지고 기본 조금이라고,

○○○ 위원

점수를 매기는 거고.

○○○ 위원

그 경쟁을 가지고 사실은,

○○○ 위원

오케이.

○○○ 위원

누가 입찰자가 될 것인가 결정,

○○○ 위원

차별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 위원

‘차별성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체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위원

아니면 ○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이니까.

○○○ 위원

○개 이상.

○○○ 위원

○개 이상은 만점 주고, ○개는 ○점, ○○점,

서울시관계자

○점 차이씩 해서.

○○○ 위원

그러니까 ○점 차이로 해가지고.

○○○ 위원

예.

○○○ 위원

○개는 ○○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서울시관계자

그러면 ○점, ○개 이상을 만점으로 해서요, ○개 받으면 ○○점,

○○○ 위원

○○점.

○○○ 위원

○○점.

서울시관계자

○개면 ○○점, ○○점, ○○점 이렇게 해서,

○○○ 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관계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위원

그럼 만점 기준을 ○개,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관계자

○개, 최대 ○개 만점.

○○○ 위원

그러면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관계자

점수는 ○○점 여기에 배당하고 면적에 ○○점 배당하고 그러면, 예.

제1호 안건결론

○○○ 위원

그렇죠, 면적 ○○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점을 구분을 하는데, ○○은 ○○점, 그다음에 ○○가 ○○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의 경우에는 ‘만점이 ○개 이상이면 만점이다.’

그다음에 ○개가 되면 거기에 ○점이 빠지니까,

○○○ 위원

○점.

○○○ 위원

○점이 빠지니까,

○○○ 위원

○○점.

○○○ 위원

○○점이 되고 이렇게 차등으로,

○○○ 위원

예.

○○○ 위원

○점씩 떨어져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 위원

예.

○○○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없으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된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다음은 두 번째 심의안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 ○○○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지식산업센터(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시기(○○○)

제2호 안건 설명

서울시관계자

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저희 R&D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R&D센터 총 9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공공R&D는 설계 중에 있고, 민간R&D 2개가 계약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 을 4월 달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 을 ○○월 달 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는 4월 달에 공모하기로 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고, 새로 ○○○에 대해서 언제쯤 하는 게 적절할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 4월 달에 공모를 하면, ○월 달에 계약이 완료
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는 ○○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
○○에서 ‘조금 더 당기는 게 어떨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
-○가 계약이 완료되는, ○월 달에 완료되니까 ○○월 달에 ○○○-○
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면 어떨겠느냐.’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호 안전심의

○○○ 위원

○○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 위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올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 위원

예.

○○○ 위원

그러면 그 땅 자체가 같이 붙어있는 땅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하
고.

○○○은 올 지금 4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하고 땅이 딱 붙어있는데,

○○○ 위원

그거만 빠지고.

○○○ 위원

이렇게 공사를 늦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공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블록은 같이 공사를 해주는 게, 지금 현재 ○번부터 ○번까지 블록은
같은 블록이거든요.

거기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 ○, ○, ○번
은 동떨어진 데 있습니다.

블록으로 보면 여기 지도상으로 봐도,

○○○ 위원

예.

○○○ 위원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곡에 가면 다 공사 중인데, 여기도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 1년 이상이 늦어져 버리거든요, 늦게까지 하면.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4월 달하고 나면, ○월 달하고 나면 ○월이라도 바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당초에 ○○월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월 앞당기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 위원

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월에 그 ○○○-○가 끝나고 나면, ○○월에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 위원

예, 동의합니다.

○○○ 위원

예,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번 ○○○이 지금 공사 한 참 진행 중인데 그것만 또 별도로 따로 하면, 설계,

○○○ 위원

아니요, 그게 지금 올해,

○○○ 위원

올해가,

○○○ 위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위원

예, 올해.

○○○ 위원

그 블록하고 ○○○블록하고 같이,

○○○ 위원

같이 들어가는 게,

○○○ 위원

같이 묶어 있습니다.

○○○ 위원

묶여 있으니까.

○○○ 위원

그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겨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사 자체가 그 블록이 한 블록 같은 블록이고, 거기 옆에 막고 하더라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 위원

저기 부지 위치가 붙어있으니까,

○○○ 위원

예, 붙어있으니까.

○○○ 위원

공사할 때 옆에도 같이 공사해서 완공할 때까지,

○○○ 위원

같이 하자.

○○○ 위원

땅 파고 이런 거 같이 해야 되지 않나.

○○○ 위원

완공하는 게 훨씬 더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 쪽에서 이게 만약에 저기 같이 했을 때 분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서울시관계자A

예, 말씀드리면 지금 ○, 그 옆에 삼각형 모양의 ○○○은 설계 중이고
요.

올 연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나누어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지하 굴토 심의라
는 게 인접 대지 굴토 심의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선행
된,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녹지축이 한 3, 40m 폭으로 있고 그래서
공사상으로는 텀을 두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을 ○○월로 이렇게 ○개월 앞당긴다
는 것은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기기는 하되, 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착공을
감안하면 사실은 ○○○블록은 규모가 가장 큰 블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커서, 신속하게 착공하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한 ○월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리고요.

○○○ 위원

○월이요?

서울시관계자A

예, 늦춘 이유는 나중에 착공하고, 이게 또 착공하는 시점을 감안해서
이거는 내년 착공할 거잖습니까, ○○○은?

그러면 ○○○은, 그 삼각형 땅은 금년 말에 착공을 하면 실제로 땅을
파는 것은 내년 봄쯤이면 파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겨울에는 파기가 어려우니까, 착공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착공하고, 그러면 ○○까지 겹치면 내년 하반기까지 착공
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 ○○, ○○이라는 큰 부지는 그때 설계가 끝
나고 착공을 그때 해도 무방하니까,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큰 의미는 없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공사
상의 일정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상 인력 투입을 감안을 해서, 텀을 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 위원

지금 말씀은, 잠깐만요.

우리 ○○○.

서울시관계자B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 관점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하고 팀이 지금 같은 연도 ○월에 공모가 나가고, 당초에 ○○월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민간공모 ○개 사업자가 설계 중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해서 입주 시점에 분양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저희 당초 계획이 ○년 텀으로 산업단지 필지를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상당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수요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너무 빨라지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에서도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결론이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관계자B

그러니까 ○○월이나 ○○월이 저희 당초 계획보다 빠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월이나 ○○월도 저희 최초 계획보다는 빠르게 공모한다는 것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죠.

○○○ 위원

그 착공시기, ○○○을 빨리 분양을 하면 나중에 입주기업 모집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관계자B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주기업의 수요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저는 분양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옆이 같이 ○○○이 공사 중에 있는데,

○○○ 위원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 위원

완공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그러면 잘못하면 착공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입주기업들 문제는 지금 대부분 보니까 ○○○개, ○○○개씩 입주희망기업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입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저기 지금 우리한테 저기 심사받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개, ○○○개씩 다 입주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기업들마다 다 다르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 ○기업들이 들어와요.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해놓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채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관계자A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당초 저희가 우려했던 것 때문에라도 많이 이렇게 늦춰주신 거였는데요.

그런데 최대한 늦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님 말씀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지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같이 준공이 되면, 주변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 쪽에서는, ‘이게 당초에 이렇게 9개 R&D센터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건물 다 지어놓고 사실 여기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하는데 수요·공급 부분들이 너무, 공급이 너무 많으면 채워주기가 힘들니 단계별로 이렇게 건립이 되는 것인데, 당초는 ○년마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 ○년 주기로 당겨져서, 나중에 입주기업 모으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

는 그런 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 위원

그 말씀이시죠?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저기 ○○○ 말씀했던. 그렇죠?

그러면 ○○○○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의견을 드렸었으니까, 위원님도.

1안과 2안 중에서 그러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개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쪽에서는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은 그 옆에 있는 ○○ ○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서울시관계자A

저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뭐가 이렇게 많으세요?

한 번에 정해서 이야기하세요.

서울시관계자A

당초 ○○월로 가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것은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월 이야기를 해서 혹시 ○월하고 ○○월하고 두 가지 안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 달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 위원

그런데 그거는 표면상에, ○○○이 ‘어느 정도 시점에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죠.

여기에서...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 위원

그러니까 ○○○의 의견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서울시관계자A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 지나 ○월로 해야
나중에 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모양이.

○○○ 위원

더 당기는,

○○○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여쭙볼게요.

○○○ 부지가 지금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착공 예정 시
기가 언제예요?

서울시관계자

○○○이 올 ○○월.

○○○ 위원

올 ○○월?

○○○ 위원

착공이요?

서울시관계자A

○○월입니다, ○○월.

○○○ 위원

그러니까 ○○○부지요.

○○○부지가 지금 설계 중인데 착공 땅 파는 게 ○○월?

서울시관계자A

아니 착공, 저 서류상 착공.

서울시관계자

착공 ○○월입니다.

○○○ 위원

서류상 착공이고 실착공은 언제쯤이예요?

서울시관계자A

○○ 지나야 되겠죠.

○○○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착공이 ○○이네요.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그러면 ○○ ○이고 여기는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서울시관계자A

한 ○개월, ○개월도 안 걸립니다.

○○○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 지나고 나면 ○, ○월에 실착공 땅 파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서울시관계자A

예, 아까 제가 말씀.

○○○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부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나서 설계 기간이 ○개월이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서울시관계자A

민간에서 하는 거라 공공보다는 빠릅니다.

○개월은 잡습니다.

○○○ 위원

○개월.

그러면 우리 ○○○ 위원님은, 땅 팔 때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

○○○ 위원

예, 했으면 좋겠다는.

○○○ 위원

내년 ○, ○월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의 팀을 주면 대충 된다고 보면 ○월 해도, ○월 하면 저 내년 ○월까지는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될 수, 충분히 가능한 하겠네요.

서울시관계자A

예, 그래서,

서울시관계자

공고해서 실제 계약까지도 기간이 필요해서요.

○○○ 위원

계약하고.

서울시관계자A

그러면 ○월이네요.

○○○ 위원

○월하면, 공사가 이쪽에 할 때 이쪽에 착공을 하니까 애가 조금 더 빨리하는 개념이니까,

○○○ 위원

그런 큰 차이는 없는데,

○○○ 위원

예.

○○○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

그렇지, 큰 그림에서는.

○○○ 위원

사실은 ○○○-○할 때 이것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으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해줬을 건데.

○○○ 위원

○월 이 정도로 당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월,

○○○ 위원

아니 ○월 정도만 하면,

○○○ 위원

○월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 위원

하면 내년 ○월, ○월에 착공은 가능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기 지금 앞에서 결정한 부분의,

○○○ 위원

그렇지, 해서 공모하고.

○○○ 위원

업무로드 때문에 적격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월 달에
발주가 가능할까요, ○○○?

○○○ 위원

지금 3월 중순, 말 다 되는데 ○, ○, ○, ○.

서울시관계자

예, 지금 ○○○에서 ○○-○ 관련해서 공모해서 여유시간, 공모를 하
면 실제 ○월 달에 접수해서 ○월 달에 선정하고 이런 일정입니다, 지
금 ○○○-○가.

그래서 ○, ○월 달이 한창 바쁠 때인 것 같기는 한데요.

공모준비를 그전에 사전에 해놨다가, ○월 달쯤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
까요?

○○○ 어떠세요?

서울시관계자A

그러면 공모기준은 ○○○-○, 지금 오늘 결정한 그거를 그대로 ○○
○에 적용을 한다면,

서울시관계자

예.

서울시관계자A

예, 그러면.

그런데 ○○○이라는 게 워낙 크고 좋은 땅이라, ○○○-○의 기준을
그대로 할지, 아니면 ○○-○ 한번 경험하고 ○○은 또다시 이렇게 수
정을 해 봐야 될지 그런 기회를 또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생각은 언제 딱 하면 딱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돌리니까 헛갈려요, 이야기 듣다가.

서울시관계자A

아니 이게,

○○○ 위원

○○○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서울시관계자A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 위원

의견을 하나만 주세요, 딱.

서울시관계자A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A

당초 일정으로 ○○월로 가거나 아니면 당겨서 ○월로 하거나 그렇게,

○○○ 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에 ○○-○ 부분을 오늘 저기 하면서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요, 위에 공고 일정이, 공모 공고를 ○월 달에 하고, 사업 신청접수가 ○개월 걸리는 ○월 달에 하고, 평가 및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을 ○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월 달에 하면, ○개월 걸려서 ○○월 달 되면 사업 신청접수를 하고, ○○월 달에 우선협약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니까 업무로드는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 어차피 공모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변하더라도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업 신청접수 해서 그런 것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있는가 보면, ○월 달 전에 만약에 이 공모기준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월 중에 한번 그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월 달에 공모 공고를 하더라도, 큰 업무상에 부화는 안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관계자A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을 ○월로 하고, 2안은 그냥 당초 ○○월로.

○○○ 위원

그대로 ○○월로 하고?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서울시관계자A

결정을 해주십시오.

○○○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의견 있으세요?

○○○ 위원

아니요.

○○○ 위원

9쪽으로는 1안이 ○○월이 아니고 ○월로,

○○○ 위원

○월로 당깁니다.

○○○ 위원

○월로 당기는 것으로 하고, 2안은 당초대로 ○○월로 하는 게 2안이 돼서,

○○○ 위원

예, ○○월로.

1안하고 2안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 위원

예.

○○○ 위원

○○○ 위원님 의견이 또 있으세요?

○○○ 위원

○월에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위원

○월이요?

○○○ 위원

○○○은?

서울시관계자

○○-○는 ○월에 합니다.

○○○ 위원

그리고요?

서울시관계자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

○○○ 위원

○○○입니다.

서울시관계자

○○을 언제 공모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 위원

...그거를 1안 하고 2안 한다고요?

○○○ 위원

예, 지금 ○○○이 아니고 ○○○입니다, ○○.

서울시관계자

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

○○월보다 더 당기니까요.

○○○ 위원

○○월보다 ○월 당기는 게 1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2호 안건 결론

○○○ 위원

다른 의견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 제1안을 당초에 ○○월로 되는 것을 ○월로 ○개월을 앞당깁니다.

1안은 ○월이고, 2안은 당초 계획대로 ○○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거 수.)

전원 찬성.

그러면 ○○○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월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다음 세 번째 심의안건입니다.

세 번째는, 준공기한 연기 승인기업 조건 변경 여부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께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제3호 안건

준공기한 연기 승인기업 조건 변경 여부 심의

제3호 안건설명

서울시관계자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준공기한 연기를 ○○○○에서 신청할 때 조건을 뒀습니다.

10페이지에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조건사항 이행 현장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를 ○○월까지 마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준공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점검한 결과 아직 ○○월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조치를 ○월○○일까지 한 상태입니다.

기업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조건에 관련하여 변경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하여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 준공 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월○일까지 다 완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준공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2페이지에 최종적으로는 정리는 되어 있는데요. 착공 기간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준공한 경우에는,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면 ○○ ○○을 ○○○○ ○○○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사도 상당히, 그림에 보시면 ○○년○월하고 ○○년 ○월에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 조건 중에, ○○○○○○를 준공 전에 하는 조건으로만 연장시켜주시면, 크게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호 안전심의

○○○ 위원

○○가 설명한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게 ○○○○가 만들게 되면, 아마도 이게 점용료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만든다.’라면 도로 하부에 놓기 때문에 그거는 점용료를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강서구에서.

‘이게 연기가 돼서 나중에 진행된다.’라면 그 점용 기간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어찌 됐든 자료만 보면 도로 하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용에 의한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도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 ○○○○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인지, 아니면 점용에 의한 방법만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위원

여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업체 와 있습니까?

○○○○ 와있나요?

서울시관계자C

대기해 있습니다.

○○○ 위원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서울시관계자C

왔습니다.

모실까요?

○○○ 위원

어떠세요?

의견 한번 들어보고서 그다음 우리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서울시관계자C

여기 기업 상황을 들어보면 ○○년도 건축 허가 받을 때요, 강서구 건설관리과가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협의의견 받기를, ‘○○○ ○○ ○○ ○○○○○ ○○ ○○○○○ ○○○ ○○○○.’라는 문서로 의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방향은 점용을 방향으로 지금 허가를,

○○○ 위원

점용으로 하는 거죠?

서울시관계자C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점용료하고 관련은 또 있겠네요.

서울시관계자C

맞습니다.

○○○ 위원

점용 문제도 있고요.

그 지금 보면 공사가 한 참 진행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공사순서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는 공사가 되면서,

○○○ 위원

맨 마지막에,

○○○ 위원

도로를 갖다가 하는 부분인데 먼저, 한참 도로로 쓰고 있는 먼저 그거를 갖다 정리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그것을 하기가 버거워서, 이것을 뒤로 늦추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 위원

그거를 왜 애당초 몰랐나요?

○○○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에서 어찌 됐든 점용허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또 기한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면 다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관계자C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진행하지 않아가지고요, 점용허가 신청단계가 아직 현재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면 준공 시점에, 그때서야 임박해서 점용신고를 할 예정이다.’까지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지금 현재 점용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미신청단계입니다.

○○○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신청한다.’라면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서울시관계자C

그렇지는 않습니다.

○○년, ○○년 허가받을 때 건설관리과가 허가의견으로 준 게 ‘○○○○○○○○.’까지는 의견을 준 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허가조건상에.

○○○ 위원

그게 기업체 입장에서 점용허가를 하면 구청에서는 별 이상이 없으면, 정당하다고 그러면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주죠.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점용을 받아가면서, 먼저 땅 파서 그거를 ○○○○○를 만들어갖고 ○○○○를 만드는데, 나중에 공사상에 또 수정해야 될 일 있지, 변경,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또 땅을 파서 이중적인 부분이 발생 될 수 있으니,

○○○ 위원

맨 나중에.

○○○ 위원

이쪽 건물 짓고 나중에 완성되면 땅 파고, 어차피 또 굴착복구 심의 받아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하니까, 한 번에 하게끔 아마 하려고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만일에 ○월까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월까지 안 되면.

서울시관계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면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위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죠.

○○○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안 되면 계약해지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지은 것 다 어떻게 돼?

서울시관계자

그래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기, 여기 투자를 해서 거기 사옥을 짓고 연구단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굳이 사소한 것 가지고,

○○○ 위원

예.

○○○ 위원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업체의 요구사항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예.

○○○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을 클리어하게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마지막 준공시점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준공은 ○○년○월이니까.

○○○ 위원

예.

우리 ○○○○○○○○ 와 계시기 때문에, ○○○○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

○○○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하시죠.

제3호 안건결론

○○○ 위원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그럼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다음은 네 번째, 입주기업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께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입주기업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 심의

제4호 안건설명

서울시관계자

14페이지입니다.

○○○○○ ○○○○에서, ○개 기업이 건물 관련해서 준공기한 연기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당초 ○○○○년○월○○일에서 ○○○○년○월○○일로 연기 요청했습니다.

이게 준공기한이 늦어진 사유는 당초 증축하려고 했던 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코로나, 이렇게 이왕 처음에 6층으로 하려던 것을 8층으로 더 늘려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근무환경도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건축 심의랄지 이런 것들이 허가 관련 변경 일정들도 지연이 돼서 현재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건축 관련하여,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공계약서까지 해서 ○○건설과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다가 이 기간이 연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서를 변경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기를 하되, 연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 조건부로 준공기한 연기하듯이, ○○○○년○월까지 ○○○○○○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년○월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호 안건심의

○○○ 위원

○○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혹시 입주기업하고 ○○○○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신 건가요?

서울시관계자

입주기업하고,

○○○ 위원

예를 들어서 ○○○○ 관련해가지고.

서울시관계자

○○○○, 예,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겁니다.

서울시관계자A

예, 완료를,

서울시관계자A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신신당부 부탁을 했습니다.

○○○ 위원

그랬어요?

서울시관계자A

또 선례가 ○○○○이 있기 때문에.

○○○ 위원

본인들이 ○월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서울시관계자A

예.

○○○ 위원

그래도 ‘○○○○ ○○○ ○○○.’라고 해놔야지, ○○ 딱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결론 못 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관계자A

○○ ○○가 ○○고 그렇습니다.

○○ ○○○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A

기업들이 이게 법과, ‘지방하고 다르게 서울은 정한 계약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4호 안전결론

○○○ 위원

그러면 ○○○○을 ○○년○월까지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년○월까지 준공하는 조건을 달고 그때까지 연기한다, 연기시켜준다 하는 건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 봉 3타!)

이것으로 모든 안전 심의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안전은 총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번 지식산업센터 용도 업무시설 검토 보고 안입니다.

○○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보고안전

지식산업센터 용도(업무시설) 검토 보고

제1호 보고안전설명

서울시관계자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 때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라 하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중에 보면 공장 또는 지식산업사업장, 정보통신사업장이 6개 이상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 건축물의 용도로 보시면, 건축물 용도에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봤을 때 제조업이면 공장, 그다음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면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가 그러면 업무시설로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집법에 의하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제 등을 받을 수 있고, 꼭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식센터 관련해서 2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설립자나 분양받은 자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용도 지정 관련해서, 산업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을 건축법상으로 보면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게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여기에 연구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시설, 건축물의 업무시설하고 토지용도의 업무용지하고는 용도 자체가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업무시설로 하므로 인해서, 전혀 여러 가지 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관련 23페이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24페이지에는, 산업단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종 그런 관련 부분 참고 자료로 정리해서 28페이지까지는 그런 참고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호 보고안전심의 및 결론

○○○ 위원

보고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두 번째 보고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곡지구 유보지 산업시설용지 관리방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보고안전

마곡지구 유보지(산업시설용지) 관리방안 보고

제2호 보고안전설명

서울시관계자

29페이지입니다.

마곡에 산업시설용지에 유보지 74,989㎡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목적은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 ○○으로 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요.

30페이지에 보시면 마곡 유보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훼손을 쳐놔서 불법경작, 쓰레기투척 등 여러 가지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작이나 이렇게 했을 때 소유자확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로 방치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필지별 임시활용방안에서 ○○시설, 그다음에 ○○○○○, ○○○○○로 활용을 하고, 기타 남는 면적은 SH공사에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현재 강서구

청과 SH,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월 달에 ○○시설 같이 설치 관련해서 세부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쳐서, 그다음에 ○월 달에는 SH에서 남는 땅은 유상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호 보고안건심의 및 결론

○○○ 위원

두 번째 보고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위원

무상임대하는데,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은 없나요?
어쨌든 산업단지 땅인데, 그거를 유상임대한다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관계자

저희가 아직,

○○○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될 테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상임대로 이거
는 있는데 ‘제도상으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서, 그거는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서울시관계자

○○○에서 어떻게, 유상임대 관련해서 문제가 있나요?

서울시관계자D

예, ○○○입니다.

저희들 지금 산업단지 추후계획에 대해서, ○○년까지 저희들이 유보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상임대를 하더라도, ○○년까지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구시설은 입주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더라도,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한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땅 이야기도 땅 이야기인데, 산업단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유상임대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법령상으로.

서울시관계자D

예, 저희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 위원

예, 그러시면.

○○○ 위원

이거는 유보시켜둔 땅이기 때문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서울시관계자D

특히 용도가 없습니다, ○○년까지.

○○○ 위원

강서구청에서 저기, 여기 유상임대하는 것도 재산세 감면할 수는,

○○○ 위원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 위원

그것도...

○○○ 위원

사실 ○○○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안타깝게 땅이 이

렇게 남아도는데, SH공사에서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저기 ○○○○ ○○○○님 오셨으니까, 통상 나대지를 구청에서 ○○시설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 되면 ○ ○○○○ ○○ ○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활용이 되더라도,

○○○ 위원

지금 강서구가 ○○○○○○○가 지하화하고 있는 과정이, 아마도 ○○ ○○년도에서 ○○년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 위원

예.

○○○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유수지 부분도 지금 현재 원래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70% 정도 덮개를 해서 ○○○○을 조성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50%만이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부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나옵니다.

○○○ 위원

예.

○○○ 위원

그래서 그런, ○○○도 어차피 거기 다 지하화되면 거기는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위에, 예.

○○○ 위원

유보지 활용 차원에서 그냥 거기,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어차피 ○○○○ 위에다가 공원이 만들어지고 대체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스무스하게,

○○○ 위원

실제 마곡이 개발이 되면서요,

○○○ 위원

예.

○○○ 위원

마곡이 거기에, 저기 전체적으로 마곡이 개발하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오고 그 많은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시설 하나가 없습니다.

○○○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진짜 기업들이 ○○○○ 하겠다고 해도 어디 빌려줄 공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긴급하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21년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보고안건

2021년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계획

제3호 보고안건설명

서울시관계자

32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 현황 보시면 토지가 약 157필지가 있는데, 153 필지가 분양 완료가 되고 4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남은 필지에 대해서 올해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일반분양계획에 보시면, ○○○에서 ○○○-○까지 총 4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입주자격은 ○○○○으로, 가능하면 여기는 ○○○○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 ○○을 ○개 이상으로 하고, 평가를 해

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분양 일정입니다.

상반기에 ○개 필지에 대해서 ○개의 ○○○○을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도 또 ○개의 필지에 대해서 ○개의 ○○○○을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R&D 쪽 평가방식처럼 이쪽 일반분양평가에서도 평가 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에는 그 관련된 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 공급할 ○○○-○, ○○○-○는 건폐율 ○○%에 용적률 ○○○% 이하, 층고는 ○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활성화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3호 보고안전심의 및 결론

○○○ 위원

○○○께서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번째 다음 보고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개 착공유예기간 부여에 관한 보고 건입니다.

○○○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보고안전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개) 착공유예기간 부여

제4호 보고안전설명

서울시관계자

지금 36페이지에 대상기업 총 ○개 기업이 있습니다.

○개 기업이 실제 착공기한을 넘겨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기간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하거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면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 기업이 전부 시정기간 안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호 보고안전심의 및 결론

○○○ 위원

37, 38페이지까지 보고하신 건가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보고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섯 번째 보고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차, 제9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입니다.

○○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보고안전

제8, 9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5호 보고안전설명

서울시관계자

마곡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도시형 공장 신설 승인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8차, 9차 2차에 걸쳐 있었어요.

총 그 도시형 공장 신설 승인 심의는 ○○, ○○○○○, ○○○ ○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장,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시제품으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관련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5호 보고안전심의 및 결론

○○○ 위원

○○께서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안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그러면 오늘 4건의 심의안전과 5건의 보고안전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위원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이 있습니까?

서울시관계자

지금 아직 일정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일정이 확정되면 위원장님 먼저 상의해서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계속 심의하고, 아까 말했던 공모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그것 관련해서 아마 추가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정책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봉 3타!)

.....폐 회